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아메리카노 냄새만 가득하다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항상 눈에 들어오는 과자가 있다. 가장 좋아하는 과자는 보리 모양을 닮았거나, 바나나가 주원료이거나, 달걀처럼 고소하고 달콤하거나, 달달한 것이 중심이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과자는 추억을 머금고 있다. 그 추억의 뒤편에는 가난과 다양하지 않은 주전부리로 어쩌다 한 번 맛을 본 달달한 과자 보따리를 떠올리며 미소 짓게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예전에는 한 봉지에 두툼한 양적인 면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사서 먹어본 보리, 계란, 바나나 등 다양한 과자는 먹을 것이 없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포장지는 불필요하게 크고 과장된 광고에 먹을 만큼 먹을 수 없는 과자가 그 안에서 고개를 불쑥 내민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한마디로 '먹잘 것이 없다'라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다.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중시하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청년 세대가 '캐러멜 마키아토' 같이 달달한 '자판기 커피'를 선호하는 꼰대 세대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친구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해 그리워하던 친구의 연락처를 어찌어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설렘으로 통화를 하고, 실제 만나서 얼굴을 한두 번 보고 나면, 시큰둥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한다. 정말 보고 싶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만난 것인데,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다. 그저 세월의 흐름을 간과한 채, 머리는 여전히 추억을 먹고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공허함에 빠지곤 한다.

직장에서의 기대감도 마찬가지다. 그 누구 하나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직장생활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곤 한다. 나 자신 또한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직장인'이 얼마나 될까? 신입도, 관리자도, 다 그들의 위치에서 토해내지 못하는 수많은 '참고 참으며' 허공에 수백 번 '참자, 참자, 인내하자'를 내지를 것이다.

지나간 여우비처럼 길가에 떨어진 감
질나는 달달한 부스러기 한 조각에
성장을 멈춰 버린 추억의 기다란 마
을 입구엔 구수한 과자 피티 펼쳐지고
오색물결 단풍이 익어 갈 때면 새까
만 얼굴로 덜 익는 땡감을 씹어 물고
여운처럼 밀려오는 달콤한 낯섦에 안
테나를 세우고 꼼벅꼼벅 벌름벌름
뭉게구름 위로 두둥실 떠가는 전봇대
에 하나 두우울 불을 밝히면 부스스
솜사탕처럼 부풀어 오른 머니먼 마을
언덕엔 아메리카노 냄새만 가득하다.

박여범, 〈아메리카노 냄새만 가득하다〉 전문-

위의 시처럼, 우리는 추억을 먹고 산다. 그 추억이 비록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도 기꺼이 소화해낸다. 이처럼 우리가 만족한 삶과 기대치는 항상 거리감이 있다.

'낯섦의 안테나'를 통해, 그 거리감에는 극복할 수 없는 처절한 아픔이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아픔을 극복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우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칭찬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어떤 관계든지 이것만 적용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 상처를 주는 것도 인간이지만, 상처를 치유해줄 유일한 약도 인간이다.

솜사탕처럼 부풀어 오른 마을 언덕에 자리 잡은 아메리카노 냄새만 가득한 카페를 찾아 추억의 책장을 넘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준비되었는가?

아메리카노 냄새 가득한 전봇대에 한둘 불을 밝히면 사랑하는 사람과 두 손 꼭 잡고 걸어볼 준비가 되었는가?

독자제언

'이륜차 운전자'는 명심해야

최근 5년 사이 배달앱의 성장과 더불어 코로나 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배달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빠르게 배달을 하기 위해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서슴치 않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은 도로위의 운전자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인명피해가 큰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신고를 받고 이륜차 교통사고 현장에 가보면 이륜차 특성상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차량 무게와 비교하면 가벼운 이륜차 쪽에서 조그만 충격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농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이륜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유는 불편하고 더워서이다. 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보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륜차 안전모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하지 않기, 안전모 착용 생활화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사회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음을 명심 하고 더 이상 이륜차 운행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백광훈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생활방수칙, 꼭 지킵시다

최근 방역 수칙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상생활에서 방역을 준비하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었다.

코로나19바이러스는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이나 물류센터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전염 상황만 보아도 아직 안심을 할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발표한 다음과 같은 생활방역 지침을 꼭 확인하고 실천하도록 하자.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

제2수칙,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두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을 둡니다.

제3수칙,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립니다.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이 외에 지침들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꼭 확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방역지침을 자연스럽게 실시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이주승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 설

코로나 극복하려면 방역 수칙 지켜야

코로나가 쉽게 퇴치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코로나의 퇴치를 염원하고 있건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간 걱정이 아니다. 진정 되는 듯 하다가도 재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황금 연휴 기간 때부터 새로운 확진자들이 늘더니 감염원을 알수 없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이제 5월도 끝자락인데 6월에도 일상의 회복이 어렵게 됐다. 수원수구라는 말 그대로 누구를 원망하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니건만 일부 인식없는 이들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폭폭해 뛰다 죽을 노릇이다.

쿠팡 물류센터를 비롯해 새로운 발병 환자들을 발생시킨 물류센터들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지금이다. 발병 환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으니 정녕 반면 교사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그런 불행이 없었을 터인데 말이다. 이태원발 코로나 집단 감염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끼는 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확진 환자가 하룻밤새 수십명 씩 발생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전북 지역의 경우 그래도 청정지역이라서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8만 6113 명이 등교를 시작하였다. 교육감이 책임지겠다고 말한 가운데 이루어진 등교이다. 도교육청은 방역 당국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만전을 기하는 자세는 학부모들의 마음과 같은 수준의 것이라야 한다. 그래서 존경받는 교육감이 되고 칭찬 받는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를 상대로 하는 전쟁은 보건 당국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일반 시민들도 할 일이 있다. 서울의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며 부천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이 큰 교훈을 주고 있는 이때, 개인주의에 바탕한 제멋대로의 행동은 곤란하다.

코로나 극복에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려는 연대 정신이 큰 힘을 발휘한다. 실내를 제 때 환기하고, 손을 의식적으로 자주 씻고, 마스크를 끼고 외출하기와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 알상화로 기필코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이야기이다

젊은이 유출 문제 대책 있어야

전북도는 생각에 생각을 더 해야 한다. 해결해야 할 것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 산적해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젊은이 유출 문제이다.

지난 날 수차례에 걸쳐 심상치 않다고 우려를 말했는데 그게 기우가 아니였다.

통계청이 보고한대로 전북은 수년 전부터 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후 변화의 기미를 보이기는 고사하고 해마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도내 전체 인구에서 노령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고 있다.

전국의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전북의 인구 감소 폭이 제일 컸는데 거주 인구마저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 미래가 난감하다.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산이 고민이 되고 있는 중에 노인 인구의 증가는 지역 사회의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65세 이상의 인구 증가는 우리 전북이 활력을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번에 인구 감소로 도내 읍면 동의 77%가 소멸 위기라는 진단이 있었는데 그 우려의 말이 다시 또 터져 나오고 있다.전북도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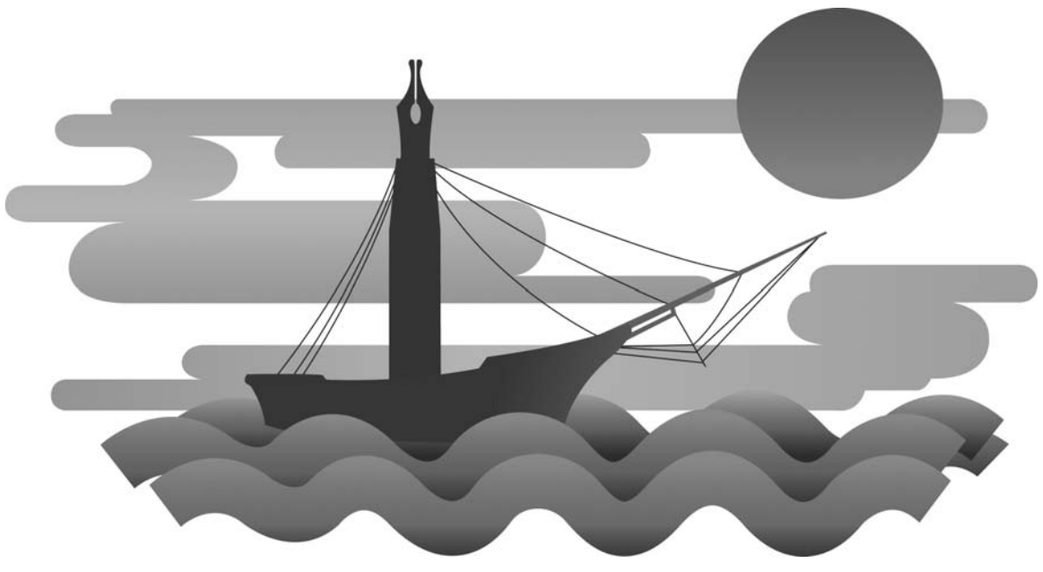
전북도가 예전에 소개한 '인구 늘리기 민관 실천 협약'이 어찌됐는지 궁금한 오늘이다. "인구댐을 쌓아 전북 소멸을 막는다"고도 했는데 말이다. 수년 전에 서울시가 65세 이상 인구 15%를 넘어섰다며 걱정을 말했는데 우리 지역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매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미련없이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젊은이의 유출이 주춤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진정되면 도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경기로 대전으로 떠날 것이 뻔하다.

우리 전북이 늙어가고 있다는 진단은 결코 허튼 것이 아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16년에 18.12%이던 것이 2017년에는 18.72%로 늘었다.

그리고 2018년에 19.27%이던 것이 2019년부터는 서두에 밝힌대로이다. 이러다가는 염려했던 대로 현재의 182만 명대가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다.

전북도는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있을 젊은이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워두고 있어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